

잘난 사람들의 '여자 조심'

노순동 / 시사저널 기자

요즘은 교수가 되면 주위에서 해주는 말이 딱 하나란다. “여자만 조심하게.” 여자 제자를 조심하라는 뜻이다. 교수들은 ‘걸면 걸리는 게 성희롱’이라고 자조하는 격이겠지만, 내 귀에는 그만큼 문제행동이 만연해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.

사실 성희롱 만큼 남·녀 체감도가 다른 사안도 드물다. 남성들은 분위기 좋자고 하는 것이라 하고 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성들은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잘 안다. 문제 제기를 하자니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, 돌아서면 자괴감이 밀려온다. 차라리 죽을 맞춰주는 쪽으로 적응하기도 한다.

이른바 S대병원 성희롱 사건도 이런 전형성에서 비껴나 있지 않다. “야, 니 꺼 발라. 너 많이 나오잖아.” 지난 2월 S대병원 비뇨기과 수술실에서 의사가 했다는 말이다. 간호사는 ‘니 꺼’란 여성의 질 분비물을 의미한다는 것이고, 의사는 꼭 그런 뜻은 아니었던단다.

병원은 이례적으로 사건 한 달여 만에 의사를 진료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. 평소 그의 행태와 간호사들의 집단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. 당시 재빨리 수습에 나서다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안도감으로 사건을 지나쳤다.

이 사건이 다시 관심을 잡아 끈 것은 그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들고 일어나면서다. 수백 명이 탄원서를 썼고, S대학교 정문에서 총장 면담을 요

구하면 시위에 돌입했다. 현장에 가보니 환자들의 분노가 대단했다. 하지만 환자 명단을 검토하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. 낯익은 이름이 끼어 있었던 것이다. 그 대학 명예 교수였다.

이후 그는 거세게 항의를 해왔다. 그와 약속대로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는데도, S대 명예교수라는 점이 언급된 것이 더 당혹스러웠던 것이다. 그는 “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안다.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그런 일로 일을 못 해서야 되겠느냐.” 그리고 덧붙였다. “왜 나를 끌어 들었느냐.” 묘한 이중성이었다.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은 꺼렸다.

당사자인 허 아무개 간호사를 만나면서도 당혹스러웠다. 18년째 일하는 그는 반말을 예사로 들어왔고, 후배들 앞에서 S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박을 당해왔다. 교수는 교수대로 웬 뒤통수냐는 반응이었다.

잘난 사람 중에 잘난 사람일 게 자명한 S병원 의사의 성희롱 사건을 취재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. 피해자는 숨고, 가해자는 당연한 것도 여전했고, 한국 사회가 이른바 ‘잘난 사람’에게 관대한 문화라는 점도 절감했다. 다행히 S대학교는, 이 사건을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.

그러나 예전의 사건과 비교해 얼마나 의식이 바뀌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. **이진우**